

다산포럼

학부모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

세월호의 희생자가 학생만은 아니고 그 가족들이 모두 비통한 시간을 보냈겠지만, 단원과 학부모들의 의연한 대응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말로 표현 못 할 절망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슬픔을 서로 나누면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추궁하고 모교 윤동에 나서는 시민으로서의 상식을 보여주었다.

그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물론이고 그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자신의 일처럼 느끼며 이들에게 공감했던 것은 어린 생명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이다.

일찍이 4월(4·19) 혁명의 실패에 좌절했던 시인 김수영은 그의 시 '사랑의 반주곡'에서 이런 역사의 배반을 겪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노래한다.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고 시작하는 이 절장은 사회변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흐름

을 탄생시킨 '사랑'이라는 기원을 불러낸다. 이제 '소리내어 외치지'는 않아도 "복사씨와 살구씨와 귤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을 노래하는 시인이 지금 살아 있다면 어떻게 지켜보았을까.

그 사랑의 씨앗이 싹을 틔워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수장시키고 만 집권세력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분노를 목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경험은 통상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상을 일시적으로 넘어선 영역에서 생겨나기 마련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뜨거운 연대가 학부모들 사이에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원과 학생들의 꿈에 부푼 수확여행이 3이 되기 전 마지막 젊음의 축제였다는 말이 아프게 상기시키듯,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대학입시에 목을 매고, 학부모들은 자식이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듯하다.

학부모라는 이름의 이 수수께끼와 같은 범주가 보여주는 이 같은 이중성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무한경쟁이 부추겨지는 사회에서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누가 닦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출세시키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구실에 기대어, 교실 붐비를 한탄하면서조차 사교육에 열중하고, 대학 서열화와 그로 인한 입시지옥을 비판하면서도 그 이수라장에 아득바득 뛰어들다. 그러다가 자식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세월호의 참사를 마주치고서야 잠시 그 너머를, 생명을, 사랑을, 문득 돌아보는 것이다.

사실 세월호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서 앞으로 대학사회와 한국의 교육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법안인 지난달 말 여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강제적인 대학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사학재단에 상식을 뛰어넘는 특혜를 주는 반면 대학의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에 대한 대책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경영에서 비롯된 잦은 부정과 비리로 대학을 어렵게 하던 부실사학들은 언제든 대학을 마치자신의 사유물처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출산을 저하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일정한 조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위기는 한국 대학의 구조적인 병폐, 즉 지나친 서열화에 있다. 하지만 이는 입시과열을 완화하고 고액등록금과 사학비리를 초래하는 사학중심의 대학편제를 선진국처럼 공교육 체제로 개편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같은 개혁의 길을 마다하고 대학을 기업체처럼 구조조정하려고 든다. 교육현장의 교수와 학생은 거의 방치하면서 기득권층과 유착관계에 있는 사학재단에는 '특혜'를 도입하여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특혜를 부여하려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대학교육의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사학재단들은 마치 세월호의 선장처럼 여차하면 재산을 처분하고 빠져나가고 할 것이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을 대학에 보낸 학부모들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은 당연하다. 한국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에서는 지금도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 등으로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에게 이 사태는 아직 남의 일일 뿐이다.

과연 학부모들이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교육부의 이 마구잡이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는 날이 올 것인가? 어쩌면 자식들이 다니는 대학들이 표류하다 침몰하는 참극이 도래해야만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인의 말처럼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된 그 '단단하고 아름다운 복사씨와 살구씨'의 존재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씨앗들이 어느 날 마치 혁명처럼 터져 나오면서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뛰 날"이 오리라는 것도 믿고 싶다.

NGO 칼럼

청소년단체의 현실



임동하 한국청소년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갖춰 행복통일 대한민국, 평화로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단체다. 지난 1981년 설립되어 올해 33년 되었으며 초동학생단은 아랍단, 중학생단은 누리단, 고등학생단은 한밭단, 대학생단을 한울회라 부르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국청소년광주·전남연맹의 조직

은 1997년 500여개 가맹학교에 3만5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현재도 약 220개교에 1만50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과 야외활동을 통해 호연지기, 협동심, 인내심을 길러주고자 한다. 특히 핵가족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개인주의를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청소년 단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주 5일제 이후 학생들은 학원에 더 다니게 됐고, 주말이면 부모님과 여행을 다니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학생수가 매년 1만명 이상씩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도 단원수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청소년단체의 단원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지도교사'가 없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업무가 많고 주말에는 개인 시간을 보내고자 모두 단체활동 지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존 학교의 지도교사들도 매년 바뀌다보니 지도교사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단체에서는 체계적인 연수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킬수가 없어 단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도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학생들을 위한 업무로 파악하기 보다는 학교외의 단체 업무로 인식하여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다.

요즘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요인 중의 하나는

다자녀 가정의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그에 따른 폐쇄성 그리고 각종 유해성 게임등에 의한 폭력성일 것이다.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해 꾸준한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선후배관계와 동료애를 배우고, 지도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들을 배운다면 학교폭력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단체들도 시대변화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청소년단체 등이 힘을 모아 민주시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기고

줄탁동시(啐啄同時)



김경태 광주일보 독자위원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기간은 20여일쯤 된다. 부화하기 수일 전 알속의 병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반을 시작한다. 알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반응할 때 어머니 닭은 병아리가 알의 막을 찢는 소리(줄)를 듣고 밖에서 알을 깨는 일을 동시에 도와준다.(타) 이 시기에 병아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안의 껍질을 깨지 않으면 어머니 역시 밖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도록 밖에서 약간의 도움만을 줄뿐인 것이다.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꺼낸 이유는, 너도 나도 힘들다는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협동을 통해 지역 발전의 발

판을 마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 지역민들 대부분이 어렵다고들 한다. 우리 지역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지정학적 영향이다. 과거 수출산업이 추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기술도입과 원자재수입을 등을 서해안보다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울산, 부산 등 동해안에 집중했고 상대적으로 우리지역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지역자금은 지금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을 들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트, 백화점은 물론 이요, 광양만, 여천산단 등에 있는 기업들도 정작 본사는 수도권에 있다.

이처럼 어렵게도 광주·전남은 공업도시, 산업도시라기 보단 소비도시에 가깝다. 자본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되는게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호남선 KTX가 완공되어 2시간내로 수도권이 가까워지면 경기의 유속은 더 빨라지고, 이를 잘 대비하지 못해 수도권에 지역의 구매력

을 뺏긴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고무적이다. 특히 각 지역에 들어서는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다. 이 혁신도시를 통해 주요 정부부처와 공기업이 지역에 고루 배치되어 체제되는 각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나 동서로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지역혁신을 통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거래은행을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들 기관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과만 지속적으로 거래한다면, 이들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이 역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의 막대한 예산 및 수익금 등은 전산망을 통해 1초도 안되 시중은행 서울 본사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을 하자고 내려왔는데 돈은 계속 서울에 있는 꼴이다. 하지

만 이전 기관들이 지방은행과 거래하면 지역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은행들은 그 본사가 지역의 대표 도시에 있음은 물론, 지역에서 모여진 돈으로 자금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들과 지역민들에게 바로바로 수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도래된 서해안 시대로 인해 더욱 밝아지고 있다. 더불어 여천공단, 나주혁신도시 등의 지금이 지역 은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공급이 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이 활성화 되고, 광양만과 무안공원이 세계적인 물류공항의 허브가 된다면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이 지역이 동북아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영화로 인해 시장에서 평가받게 될 광주은행은 자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과 철저한 리스크관리, 우수한 지역 기업 발굴, 인제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항도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줄과 타은 미래의 진정한 지역금융의 시작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다.

社說

유병언 잡는다며 마구잡이 수색해서야

순천이 난리법석이라고 한다.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순천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검찰과 경찰이 그물망 수색을 펴는 가 하면 5억 원의 현상금을 노린 '인간 사냥꾼'들이 휘젓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원파 일부 신도들의 협조로 유 전 회장이 잠시 머물렀던 순천 청소골 계곡 주변 마을은 전국에서 몰려든 검·경과 '사냥꾼'들로 인해 주민들이 사실상 이들의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며칠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경은 지난달 23일~28일 이 일대에서 두 차례 이상 가택수색을 한 데 이어 31일에도 청소골 주변에 사는 구원파 신도의 집과 찻집 등 7가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팀이 집안을 훑고 가면 며칠 뒤 다른 팀이 찾아와 수색을 하는 식이다. 검·경의 지나친 수색·감시가 주민들의 인권과 개인 생활 침해 등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지역 시민들도 연일 계속되는 경찰의 검문·검색에 심적 압박이 크다고 한다. 차량을 살피는 눈초리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교통 정체도 다반사여서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기피로 인해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도 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실질적인 가해자로서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핵심 인물로 꼽아 놓고도 유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검찰의 책임이다. 특히 순천에서 은신처를 확인하고도 경찰과 정보 공유를 전혀 하지 않고 공을 독차지하려다 눈앞에서 놓친 것은 결정적인 미스라 할 수 있다.

검·경은 막연한 판단만으로 순천을 휘저어서는 안 된다. 도주루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정보 등을 통해 체포에 나서야 한다. 검·경의 지나친 수색·감시 소탕화는 선에서 유 전 회장의 검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장성 요양병원, 환자들 결박까지 했다니

21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도 결국 '인재'(人災)였음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이 났지만 소화기는 무용지물이었고, 환자관리도 그야말로 '제로' 수준이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법규상 해당 병동의 경우 소화기 11대(33㎡당 1대)가 비치돼 있어야 하지만 당일 3대만 사용 가능했던 점을 확인했다. 나머지 8대는 잠겨 있는 캐비닛에 보관중이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상태였다.

또 안전인 대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 당일 병원 측은 안전 대치를 위한 종합훈련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정작 화재 시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사망자 일부가 사고 당시 침상에 묶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병원 간호사는 "일부 결박 대상 환자들의 몸을 침대에 묶어 관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환자 결박

은 의사의 명확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병원 측이 적은 인력으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방화를 한 치매환자의 관리 부실도 심각한 문제다. 이 환자가 당시 라이터를 소지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소방점검을 민간업체가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양측이 결탁하면 허위·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과 감독기관 관계자에 대해 엄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전대도 역시 관련 법령을 서둘러 개정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령자의 증가로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점검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無等鼓

상이암(上耳庵)은 전북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해발 876m) 자락에 위치한 자그마한 암자이다. 인근 주민들은 성수산 대신 '생암(상이암)산'이라 부른다.

清洞이라 쓴 친필 휘호를 하사해 바위에 새기게 했다.

최근 KBS 역사드라마 '정도전'이 방영되면서 상이암이 재조명되고 있다.

암자 터는 9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려 주는 형국의 '구룡 용주지지'(九龍龍珠之地)로 일찍이 통일신라시대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827~898)가 잡았다고 알려져 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산줄기가 마치 바퀴살처럼 암자에 모이진

어릴적 옆 바위는 '여의주'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꿈꾸었을

상이암(上耳庵)

임실군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에 따

암자 터는 9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려 주는 형국의 '구룡 용주지지'(九龍龍珠之地)로 일찍이 통일신라시대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827~898)가 잡았다고 알려져 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산줄기가 마치 바퀴살처럼 암자에 모이진

이성계는 등극 전 무학대사에 이끌려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던 103일째에 '앞으로 왕이 되리라'는 하늘(上)의 소리를 들었다(耳). 이후 이성계가 암자를 다시 찾은 때는 1380년(고려 우왕 6년), 전북 군산 진포에 상륙해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 아지발도 군대를 남일 운봉 황산별 전투에서 섬멸한 후 개경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이름이 잔뜩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마당에 선 100년이 넘는 편백나무는 팽벌에 암자를 찾은 길손을 위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내일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참일꾼을 뽑는 날이다.

'위로 부터의' 소리나 '입신양명'이 아니라 경제난과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아래로 부터의' 민의(民艱)에 귀 기울이고, 공약(公約)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후보가 뽑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